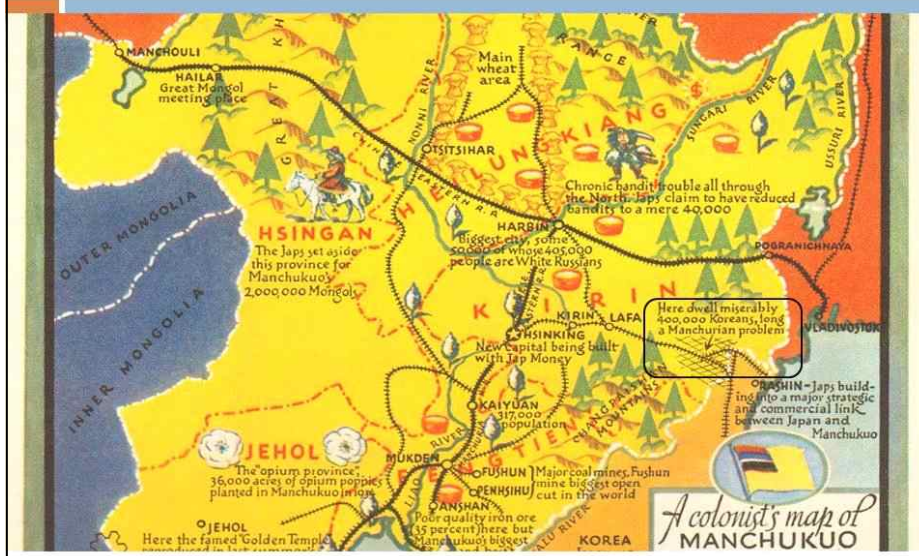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해방 이후부터 문화대혁명까지 (1945- 1976)

제롬 드 위트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Manchukuo, Modernity and the Korean People 만주국, 근대성과 조선인



Imagining the National in Manchukuo Literature

만주국 문학에서의 국가 상상



- 베네딕트 앤더슨 (Benedict Anderson)에 따르면, 근대 민족국가는 "상상의 정치 공동체이며, 본질적으로 제한적이고 조건적" 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그 의미는 이러한 상상의 과정에서 개인은 권리와 의무, 인종, 종교, 민족 또는 계급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더 큰 국가의 시민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국가적 상상은 사회가 제공하는 자원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국가 조전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약속한다. 이런 상상 속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은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사용한 청사진이었다.
-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노동들 통해 그리고 상상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역 환경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Korean writers imagining the Manchukuo nation

조선 문인들의 만주국 상상

- 연소길 (1911—1977)의 1944년 소설 『북방보』에서 주인공은 만주국에서 사는 것이 조선 농민의 운명이라고 밝힌 것은 그의 농민은 열이 아니다.
- 이 농민의 노는 조선 농민들이 그동안 대를 번고 만주국의 참여 정치 체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그리는 동시에, 상상 속의 만주국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노를 통하여 변화시킴으로써 의미를 부여한다. 조선 문인들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고도의 노동력이 어떻게 조선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되고 그들이 국가의 지을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에서, 정치적 존재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 환경의 활용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 농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지역 환경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 농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지역 환경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 농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지역 환경의 문제를 제기한다.



Who represents the nation?

누가 국가를 대표하는가?

-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국은 장춘과 같은 도시를 만주국 영토의 유토피아 도시로 홍보했다.
- 조선 문인들은 농촌이 국가의 생산 중심지이기에 그 정당성은 농촌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반대하였다.
-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The Urban vs. The Local

도시 vs. 농촌

- 조선 문인 김창걸(1911 ~ 1991)은 『만선일보』 (1940.2.16)에 실린
- 「재만조선문학과 작가의 정열」에서 써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파괴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확대가 그 당시 문화 텍스트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 “재만조선계 유일의 지도지이며 문화건설의 온상이자 『만선일보』의 학예면에 러브신이 나타나면 침울 삼키나 도시비밀층이나 농부의 생활 또는 인간생활의 암흑면이 나올 때에는 뿌리쳐버리는 것은 상레이거니와 도시상인들은 경제면에만 관심을 갖고 농촌에서는 이 시문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실정예” (김창걸은) 실마를 감치 못하고 있다.

1949-1964: The Cultural Creation of the Korean Ethnic Minority in China

1949-1964: 중국 조선족의 문화 창조



Post 1949: Reorienting Individuality to Serve the Collective Nation

1949년 이후 집단 국가에 헌신하기 위한 개성의 재정향

- “团结就是力量 (단결은 곧 힘이다)” (중국 초기 선행 문화)
- 개성을 박탈하고 집단의 의지를 따르게 하는 과정.
이 경우 관점의 재정향은 개인이 국가의 상상된 집단 공동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는 1949-1956 시기 활동한 안종과 조선족 문인들의 작품에서 모두 볼 수 있으며, 특히 ‘조선족 문학의 개척자이자 대부 (大父)’ 김창걸 (1911-1991)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The Creation of a Unique Korean-Chinese Identity

조선족 고유의 정체성 창조

- 가장 잘 알려진 새로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새로운 마음』 (1950)이라는 단편소설을 최초로 출간한 작가였다.
- 조선족 작가들에게도 이 작품은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처음 출간된 것이기에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작가 최일에 따르면, 이는 “조선족 자식을 땅의 소음자로 묘사하고 그 여백 땅을 자신의 토대로 개척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분타된 조선족 고유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 이런 고유한 정체성은 리근전 (1928-1998)의 단편소설 『박창건 할아버지』 (1955)에서도 나타난다.

“1951년 8월 16일에 있는 일이다. 정동중씨는 조선전선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 지금 친척인 태항초사람들을 위하여, 조국인민들을 위하여 영예롭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다.”

“할아버지는 미국놈들 본 일이라고 없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강도놈들의 하늘에 사무친 죄행은 알고있었다. 할아버지의 아들을 빼앗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아들따들들을 빼앗으려 하며 중국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파괴하려는 미국강도놈들의 낯짝이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우리의 갈 길을 어느 날이든지 막지는 못할거지요.”

- 이 시기 조선족 작품에서는 그들의 민족 (반도에서 유래한 것)과 국가적 유대 (이 지역에 살고있으므로 정치적, 지리적으로 중국의 일부)의 윤곽을 보여준다.

Critique of the Nationalist Project

민족주의 프로젝트 비판

식민 체제의 강자식별 붕괴는 또한 새 중국의 지도자들이 일제와 비슷한 정책과 담론을 사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노동을 하도록 설득하고, 지도자들의 새로운 노력과 정책은 진정한 "새로운" 것이기에 대한 모호함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함은 1955년까지 조선족으로 지정된 중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방해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었다. 공동체의 공통된 기억, 공유된 기억을 형성하고, 만주국 붕괴 이후 조선족 민들이 지역사회 내 남아있던 반감과 모호함을 이야기 외의 지역 환경에 대한 담론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새로운 중국의 정당성은 근대화에 대한 약속에 기초했지만, 신사적적으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와 너무 유사하게 들렸다.

- "조상님, 우리 어제 또라도록 밭을 갈고 거둬들이고 마다질까지 할수 있었잖아? 우리 이 세대에 들수 있었잖아?"
- "이거 언, 며 천 년전부터 쓰던 도리개 가지고 가임으로만 아자니 맏만 뽀 지고, 에이 참"
- 동포들은 감격한 나머지 부러움에 돌려줄으며 말했다.
- "오늘은 그 되거든 아니지만 그렇게 먼 거든 아니고, 거저 우리에게 돌려지!"

□ 김창거, 『새로운 마음』 (1950)

The Reemergence of the Colonial Past

식민지 과거의 재등장

- 그리고 더은기 과거의 창고이란 인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미를 더욱 빛그림에 빠지도록 지도한 변리가 붙은 사. 우리들은 더욱 심하게 착취받게 해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 따라서 오늘날의 부여이야말로 신민주주의사회가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다. 과거 왜놈들의 소위 '부여장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쉽게 똑똑히 레를 들면서 이야기했다.

□ 김창거, 『새로운 마음』 (1950)



Internal Enemies and the Critique of the Individual 내부의 적과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 '집단 노동'이라는 용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개인의 필요와 집단의 필요 간의 강한 갈등 중심으로 일정한 이념적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고령」의 주인과 남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기적으로 일해 왔다는 것을 서서히 인정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열망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이야기를 엮어주고, 서술적 기조를 조성하는 것은 집단 노동 체제의 이념이 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기주의적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외의 「새집」(1951)에서 지주들이 비난받는 것을 본다. 기차거의 「마음의 소리」(1951)에서 부유한 소작농들과 분절적인 존재들은 새로운 마을 등에서 분자가 되기를 꿈꾸는 조약삭 소작농들을 말한다. 이러한 대립자들은 비틀어고 노력의 이음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냉정하며 고도의 등으로 묘사된다.

"조약삭은 요새는 바껴며 집안이 가장 큰 일이라는데 여기야 어디 바껴며 자가 있겠소?"

여자는 아차마에 거지 저쪽 바머리에 미쳐서 이음 나시거려다.

"그러다그 아저 마음 노으샤 있겠소? 아직 우리네에 잘 보이지 않은 뿐 이지 엇다그 장담할 수야 없지!"

□ 기차거, 「마음의 소리」 (1951)

Unforeseen Consequences 예상치 못한 결과

- 잔인하고 아이러니한 운명의 꼬임 속에서 조석조은 정당한 정체성은 마려하고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 대신에 이글어내려는 이야기들이 동시에 조석조 정치인들과 예술가들을 향한 비난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956년부터 반우파 투쟁을 시작해 점차 더 많은 내부의 '적'들이 계속 '바껴' 되고 결국 1966년 문화대혁명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참사를 초래했다.



The Preamble to the Cultural Revolution

문화대혁명의 서문

- 1956년 공산권 전역에서의 반공 시위는 중국 지도부에 충격을 주었다.
- 공산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백화제방, 백가쟁명**
“百花齐放, 百家争鸣” 운동 (1956~1957)
- 이 캠페인에 대한 조선족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
 - “들이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이 제정된 후 민간인들을 바깥 세계로 끌어내는 사업은 얼마 연변에서도 더욱더 중시되고 있는바 깊은 중추 효과를 얻을 것이 예상된다.”



조선족 지식인들의 **백화제방, 백가쟁명** “百花齐放, 百家争鸣” 운동에 대한 수용 (1956-1957)

- 2억여명에 달하는 함경도 방북에서 인공한 박와 같이 여명 이후 조선문학 출판물 출판하기 위해 민족적으로 독립한 조선적 인물인 2만여명, 500여명에게도 했다.
- 조선족들은 국가적 의미가 아닌 민족적 의미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민족 작가들의 고과 같은 문화적 세계 다른 민족문화의 비역임을 증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잘라내었다. 그들은 자신들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지금, 어떻게 자신들을 보낼지, 그들은 스스로를 민족적으로 조선적이라지만, 국가적으로는 중국인으로서 중국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함께, 국제적 차이에 사회주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자체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 자랑스러운 조선민족... 어느 민족이나 그러하듯 세계가 들어 문화의 거점도 없이 우리 민족의 고도 문화도 만민들의 보람, 생애와 함께 만민들의 사생활에서 찾아져 왔다.

延吉市工人文化宫, 1959년竣工



김학철은 이 시기를 어떻게 겪었나?

- 작가협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작가들은 때때로 장마하노라고 농초에 가서 나무잎을 긁어모아지요. 또 시장에서는 나무껍질을 팔았습니다. 그걸 사서 먹어지요. 이런 상태였는데도 라지오나 신문은 위대하다, 위대하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 반오파투쟁때 일어났습니다. 내 작품에 《수리개는 맹금(猛禽)이다》라는 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수리개는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비판하였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작품입니다만 그 사람이 쓴 작품에 《대학을 졸업하였을 때 나는 청운(靑雲)의 뜻을 품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운이란 뭐냐, 왜 홍운(紅雲)이라 하지 않고 청운이라 했는가》, 《푸른 청운 국민당을 의미하는 거이다》 이렇게 꾸며 그 작가를 비난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김학철, 『20세기의 신화』 (1996)

The Cultural Revolution (1966-1976) 문화대혁명 (1966-1976)

- 문화대혁명이 조선족 사회에 미친 영향은 참혹했다. 조선인의 정체성은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와 중국의 민족주의(대만족주의)가 조선족의 민족성을 본질화하고 북한에 대한 배타적 충성을 전제하면서 고정되었다. 역사적 특수성을 배제한 조선인의 과거와 현재는 식민지 정치와 반식민지의 정치적, 경제적 과정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중국 내전에서 공산주의 편에 가담했지만 중국 혁명의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 문화대혁명이 절정에 이르자 조선인의 자존권마저 위협받았다. 조선족은 혁명에 반하여 봉건적 잔재, 국민당 지하분자, 식민지 변절자(친일파), 자본가(지주), 소련과 북한의 간첩 등으로 비난 받았다.
- 조선족은 문화대혁명을 연변의 일상생활에서 편지조와 외설적인 표현을 조장한 민족내 학살, 조선족 간의 투쟁으로 기억한다.

Effects on Korean-Chinese Culture

조선족 문화에 미치는 영향



- 문화대혁명에는 박은파통쟁보다 더욱 호심한 재난이였습니다. 그야말로 내란상태였습니다. (김학철)
- 시인 김철, 소설가 김학철, 김창걸 등 저명한 문이들은 모두 숙청 당했다.
- 농악무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지되었다. “청나라 병사의 모자를 쓰고 머리를 흔들거리는 것이 사회주의와 당의 령도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거 같다.” (정파룡)

문화대혁명 이후: 상흔문학



- 문화대혁명 이후 과거의 잘못을 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다. 조선족 문화 분야의 지식자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내분을 바로잡기 위해 죽기 시작했다.
- 청년세대는 이른바 ‘지식청년’ 세대로서 시대에 응답하는 배식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만큼 기성세대의 가치와 관념에 대한 적의와 부정, 그리고 현실에 대한 반역의식과 변역시도가 강력한 영향을 내뿜었다.
- 동족이라는 끈끈한 관계는 탐나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위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각의 명분 아래 그들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에 대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공격했다.
- 상흔문학은 인기가 많았다. “상흔문학은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적지》 잡지는 양만부가 팔렸습니다. 조선족의 인구가 170만밖에 되지 않는데 양만부가 팔리게 되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학철)

Korean-Chinese “Scar Literature”

조서조의 대표적 사헌부하
 나그 나그 인나그

- 장막 박종, 홍성도, 『눈에 핀 꽃』 (1980)
- 단편소설 박천수, 『억울이 된 나』 (1979)
- 단편소설 정세봉, 『하고싶던 말』 (1980)
- 단편소설 윤림호, 『투사의 스펀지』 (1980)
- 단편소설 리원길, 『백성의 마음』 (1981)
- 단편소설 류영문, 『비단이불』 (1982)



우과호, 『외로운 무덤』 (1979)

- 이 이야기는 분화대역명 당시 에어진 한족 소녀와 조선족 소년의 사랑을 그려다. 결말에서 한족 소년은 자신의 정처적 불응성에 분노하 아버지의 손에 죽고, 조선족 소년은 어머니에게 고발을 당해 3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된다.
- 결국 이야기는 분화대역명의 투락오마를 4인방의 탓으로 돌리며 "이애 " 라는 공식적인 설명에 따른 것이다.
- 이 이야기는 조선족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시킨다 반면 한족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죽여다는 설정으로 비극을 일으킨 민족 간의 투쟁도 다루고 있다.



농부작가 박선석



- 1945년 김림성 집안에서 유림향 출생
- 2021년 10월 타계
- 혁명가 출신이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정부에 의해 '부농'(富農)으로 치부돼 오명을 썼다.
- 1980년 데뷔한 그는 "조선족 사회에 만연했던 광기와 무정부 상태를 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밝혔다.

박선석, 『피와 운명』 (1985)

독자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어둠가요>를 불렀다. 무슨 <결심은 내리고 외생할 준비를 하며>라는 것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동지인가?>하는 노래들이었다. 색다른 노래라야 <언제든 칼을 갈며...>따위들이다. 다른 노래는 모두 금지했으니 부를 것이 없었다. 약문식이고 또 오락장소여지만 오음이란 없고 오미려 사벌만 분위기였다. 누군가 우리 민요 <도라지>를 불렀는데 그나마 가사를 고쳐서 백도라지를 <몽도라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음이 났다. 부마이가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제지시키며 억압하게 경고했다.

<조외들 합시다. 날은 노래를 불렀다 안됩니다.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계급투쟁을 절대 잊어서 안됩니다.>

민요를 부르던 자가 불복했다.

<그러기 내가 몽도라지라고 하지 않았나? 불온계 혁명은 상지한다면서? 시내의 총집단벽도 모든 불온 죄를 맺어대.>

<불온 도라지가 어디 있어?>

<왜 없어? 색조를 하면 되지.>



The Cause of the Cultural Revolution (according to Pak Seonseok) 문화대혁명의 원인 (박선석에 따르면)

- 공당 당국은 정치 지도자들이 시비들을 공격하고 통제하는 데 남용할 수 있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구호를 만들었다.
- 2015년에 쓴 중국 소설가 Hao Qun 郝群의 관찰과 유사

“공산당이 우리 말을 약 잡아 본 것은 대중의 마음을 폄하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었다. 문화대혁명은 이것을 극단으로 몰고 갔다. 지적인 토론과 이성적인 논의는 창밖으로 던져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많은 진정한 의미를 잃는다. 그러 다음 다음 다시 말을 이용하여 난독화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연변 연길행 항공에서